

# 늘어나는 사이버 학폭 현행법으로 못 막는다

### 학교폭력예방법 지나치게 포괄적... 금지 범위·방법 모르는 경우 많아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이용 보복 행위 금지” 명시해야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등으로 사이버상의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 학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해 학생의 SNS를 통한 '2차 가해'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만·유지연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된 가해 학생의 금지 행위가 모호하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을 이 법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2호는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알릴 경우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친구 무리에게 SNS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해졌음에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으로 강제 전학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맹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학 조치를 관한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중대 상해 또는 성폭력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과 분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무기관 위탁 교육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 없이 위탁 교육을 강제하기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보고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가해 학생의 금지 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접촉·협박·보복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피해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등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 위탁 교육도 학교장이나 교육감, 교육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교육청별 학교폭력 신고와 조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체 학교폭력 7181건 중 사이버폭력이 1220건으로 전체의 17%에 달했다. 같은 기간 광주 전남에서는 각각 69건과 151건이 처리돼 전체의 18.8%와 15.7%를 차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미얀마 군부 학귀를 몰아내는 탄봉띠  
-80년 5월의 여성들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13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광주에 사는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시위인 '탄봉띠' 집회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 시민단체·불교계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 오월 민주여성회·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쿠데타 군부의 시민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오월 민주여성회·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광주전남 6월항쟁 기념사업회 등은 지난 13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41년 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도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서 미얀마의 '탄봉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시위라는 뜻)를 재현하는 퍼포먼스 등을 함께하며, 미얀마 시민

들의 고난과 고통에 공감했다. 또 시위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전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광주 예술가들의 설치 미술전도 함께 열렸다.

4·19문화원도 같은날 광주공원에서 풍물놀이를 선보이며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불교단체는 12일 무각사 광주불교회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와 민주정권 수립을 지지한다"며 "군사쿠데타 세력들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총격과 폭력적 탄압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처여사의 민주주의의 민족동맹을 무너뜨리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총선을 새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마치 군사작전처럼 일사분란하게 민주 인사를 구금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의 아픔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별다른 저항수단도 없는 미얀마 시민들을 향해 그들은 80년 5월 광주의 모습처럼 총에 겹을 끼우고, 방패와 곤봉으로 무차별적인 폭행하고 총탄으로 시민에게 총구를 가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제주교육청, 평화·인권교육 연대

### 여순사건·제주4·3 등 매개 교육 활성화 상호 협약

전남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여수·순천10·19(여순사건)와 제주4·3을 매개로 연대와 공유의 평화·인권교육을 함께한다.

전남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여수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수·순천10·19와 제주4·3 평화인권교육 관련 수업·기념행사·체험학습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 연수와 수학여행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장석용·이석문 두 교육감과 업무 관

계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족회 관계자, 전남도의회 유성수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광일 의원, 여수·순천10·19 특위 박진권 위원장이 참석해 연대와 공유의 시간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여수·순천 10·19와 제주 4·3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형상화한 상징 배지를 서로 교환하며 두 지역 역사의 의미와 교훈을 공유했다.

장석용 전남도교육감은 "양 교육청은 제주4·3, 여수10·19와 관련한 계기교육과 자료개발·체험학습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알게 하고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같은 배경을 가진 양 지역의 역사가 평화로 이어져 미래의 희망으로 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교육청, 정신과의사 채용 쉽지 않네

### 학생마음보듬센터 월급 1200만원 상향 제공모

광주교육청이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 상담할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시 교육청 산하 '학생마음보듬센터'에서 근무할 정신과 의사 2명을 지난달 공개 모집했다.

당시 월급 1000만원을 책정했으나 응모한 이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월 급여를 1200만원으로 상향해 오는 19일까지 재공모에 들어갔다.

하지만 교육청의 급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반

적으로 정신과 의사의 월수입이 월 1500만~200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공모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응모할지는 미지수다.

학생마음보듬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 상담의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거나 학생마음보듬센터를 찾은 학생을 상대로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센터는 지난해 학교 방문 상담 95건, 학생마음보듬센터 내 상담 294건 등 총 389건(333명)의 상담을 진행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3·15의거 기념행사 개최

14일 광주시와 '광주 3·15의거' 기념 사업회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45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제5회 광주 3·15의거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61주년을 맞는 3·15 의거의 희생자를 기리고, 자유·민주·정의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3·15 의거는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반발해 광주와 마산 두 지방에서만 감행했다"면서 "광주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낮 12시45분 금남로에서 첫 시위가 일어났고, 세 시간 뒤 마산의거로 이어졌지만 마산에 비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르고 앉아 지나는 발자취를 화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쯤되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